

강기정 시장 “제주와 광주,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해 평화·분향 추모… 유족 위로
4·3유족회와 간담회 ‘평화연대’ 논의… “4·3 정명운동 함께 할것”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이어준 5·18과 4·3이 평화 연대의 길을 함께 걷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일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광주와 제주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아픔의 역사가 있고, 한강 작가는 5·18과 4·3을 다시 한번 이어줬다”며 “4·3의 이름을 찾는 정명(正名)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강 시장은 “5·18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들이 손을 잡아준 덕분에 인권평화의 상징으로 보편성을 갖게 됐다”며 “많은 이들이 평화연대를 통해 광주를 민주주의 도시로 꽃피워준 만큼, 이제 광주가 그 고 마음을 되돌려드려야 할 때이고, 이는 4·3과의 평화연대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참혹한 아픔인 4·3을 딛고 제주공동체를 이뤄낸 유족들의 노력

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77년이 흘렀음에도, 4·3은 여전히 이름이 없고 생존희생자 등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진상규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같은 활동을 통해 4·3에 이름 붙이는 정명(正名)이 반드시 필요하고 광주는 이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4·3평화공원에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 유족 등을 위로하고, 평화·분향했다.

강 시장은 추념식에 앞서 4·3희생자인 고 양천중 씨의 딸 양두영 어르신 등 생존 희생자들을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고 양천중 씨는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75년여만에 유해가 발굴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광주와 제주는 지난해부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4·3희생자 추념식에 시장



등 대표단이 교차 참석하며, 평화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강 시장은 오영훈 제주시사와 인권·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 ▲제주4·3-광주5·18 평화·인권 교류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강기정 시장은 첫날인 2일 제주4·3평화기념관 유족회 사무실에서 ‘한강이 이어준 4·3과 5·18 광주-제주 동행 간담회’를 열어 ‘평

화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화·인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연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을 비롯해 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회장과 양성주 상임부회장·양성중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차호준 센터장과 오수경 제주센터장, 5·18기념재단 박강배 상임이사, 4·3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도일 기자



북구, 따뜻한 마음 품고 달리는 ‘사랑의 밥차’ 운영
지난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점심 식사 400인분 무료 제공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결식우려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2025년 봄!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을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랑의 밥차’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직접 찾아가 점심 식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민·관 협업사업이며 IBK기업은행의 후원을 기반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의 주관으로 지역의 민간 봉사단체 10개소 및 동 자원봉사 캠프 회원이 차량 운행부터 음식 준비, 배식, 주변 정리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운영된다.

북구는 지난 2일 오치주공 1단지 배식 봉사를 시작으로 올해 ‘사랑의 밥차’ 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으며 이날 방문한 결식 우려 취약계층 400여 명에게 육개장을 제공하였다.

점심 식사를 마친 한 어르신은 “혼자 지낸 지 오래되어 끼니를 대충 때우는 일이 잦았는데 오랜만에 이웃들과 얼굴을 마주 보며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기분이다”라면서 “힘든 내색 없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나처럼 혼자 지내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함께 방문할 생각”이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상반기 사랑의 밥차는 오는 6월 25일까지 수요일마다 운영되며 ▲오치주공 1단지 ▲우산 주공 3단지 ▲일곡동 일원 ▲각하 주공 ▲두암 주공 2단지 ▲양산호수공원 등 6곳의 배식 장소 중 매주 1곳에 방문하여 회당 400인분의 점심 식사를 총 13회 제공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는 사랑의 밥차 운영에 매년 후원을 아끼지 있는 IBK기업은행과 지역사회에 나눔 가치 확산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촘촘히 유지하여 주민 모두가 끼니 걱정 하지 않는 북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3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지난 2일 오후 구청장실에서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인구 절벽의 현 상황을 알리는 캠페인에 나서면서 희망찬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공동 기획으

김병내 구청장, ‘인구 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특색 있는 정책사업으로 실마리 찾겠다”

로 진행되고 있으며, 캠페인 참여자가 다음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병내 구청장은 장제일 전남 영광군수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그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인식 개선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남구 주민들과 함께 인구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남구만의 특색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내 구청장은 후속 캠페인을 이어갈 사람으로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 심민

전북 임실군수를 지목했다.

한편 남구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가족담당관을 신설했으며, 해당 조직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해 각계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미래 인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 위기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임채일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월 5·18 민주광장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4일 오전 11시 5·18 민주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가 생중계됨에 따라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돼, 동구는 참석자 간 물리적 충돌 예방 등 안전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안전이 최우선
동구, 다중운집인파사고 대비 안전관리특별상황반 운영

관리에 힘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광주시, 경찰, 소방, 교통공사, 도시공사와 현장 상황 공유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동구 주

민안전담당관을 주축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은 질서유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일빌딩245, 5·18 민주광장 시계탑과 분수대 등에 배치될 예정이며, 집회 신

고 지점 차량 출입 통제, 환기구 등 시설물 안전점검, 지하철 역내 인파 관리 등을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서구, ‘드림 자연생태 체험’ 참여자들 큰 호응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 고창 상하농원 자연 체험에 매료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3일 드림스타트 아이들에게 자연 속 체험 기회 제공과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해 진행된 ‘드림자연생태체험’이 참여자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10가구 25명의 드림스타트 아동과 보호자들은 전북 고창군에 있는 매일유업(주) 상하공장을 방문해 각종 유제품 생산 과정을 둘러본 후 인근의 상하농원으로 이동해 동물농장·양배추장·소시지 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건강한 먹거리와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몸소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에 참가한 아이들은 “우리 몸의 건

강을 지켜주는 우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젖소들과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체험에는 상하농원에서 4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를 나눠주고 수쉐프치킨 수카츠 찜통점에서 30만원 상당의 닭강정을 후원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사실상 조기대선을 전제로 움직여온 정치권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경우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질서 있는 수습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출도 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권역제 비상대책위원장

의 임기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임기가 오는 6월 초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탄핵 반대 장외 집회와 대야 투쟁을 이끌었던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의 경우 윤 대통령의 복귀를 동력으로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체제에서 평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흔들

리거나 비명(비이재명)세력의 반격이 예상된다. 오는 2027년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남은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으로선 현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극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승복’ 입장을 묻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

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명태균·내란 특검법 등 전방위 공세를 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각하로 결론나면 내전 수준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특검 카드 등을 총동원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